

CBWF 이슈페이퍼

발행처 | 충북여성재단

발행일 | 2020. 10. 19

발행인 | 이남희

홈페이지 | www.cbwf.re.kr

코로나19 이후, 충북 여성 고용 동향과 과제

유정미 |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목차

1.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충북 '고용 훈풍'?
2. 코로나19 이후, 충북 여성 고용 지표
3.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 지급 현황
4. 코로나19, 여성 일자리 현장들
5. 정책제언

- 코로나19 이후에도 충북은 타지자체에 비해 고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지만 여성 고용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 과제들이 도출됨.
- 20대 여성 취업자 수 감소 및 실업급여지급자 증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20대 여성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타격이 가장 큰 계층임. 도 · 소매업 및 숙박 음식점업, 항공 ·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업종에서 여성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돌봄 및 학교시설의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여성들이 발생하고 있음. 전국 통계와 달리 충북에서는 50대 여성 취업자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임시직 일자리 증가가 동반되고 있어서 안정적 고용구조로의 진입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 2,30대 청년 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수노동자 고용안정 및 고용조건 개선 지원, 지역 기반 긴급 돌봄 체계 구축, 코로나19 이후 충북여성고용 실태조사 및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제안함.

1.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충북 '고용 훈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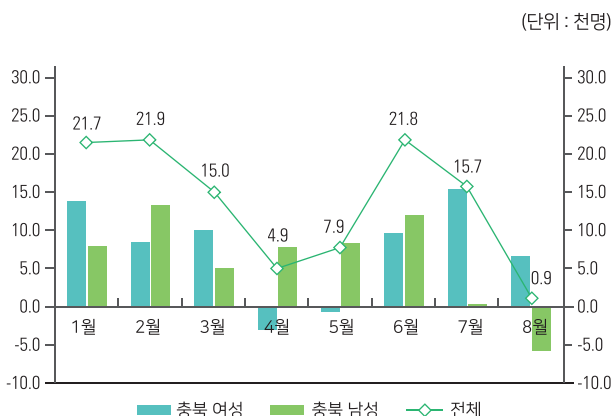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고용 현황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 고용 동향 측면에서 세부적 분석이 필요함

- 코로나19 발생 후에도 충북의 고용사정이 타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¹⁾. 전국적 고용충격이 심각했던 지난 4~6월에 해당하는 2/4분기에 충북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2천명(1.3% ↑) 증가했고, 고용률은 64.1%로 0.4%p 상승했으며, 실업자는 2만9천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천명 감소했으며 (14.4% ↓), 실업률은 3.1%로 0.6%p 하락함(충청지방 통계청, 2020. 7.). ※ 고용률 전국 2위(8월 기준, 69.1%), 청년고용률 전국 4위(2/4분기 기준, 43.9%).
-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산업별, 직종별 차이가 있고 고용의 산업 및 직종별 구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다양한 특성들을 통해 구조화되어 있어서 각 계층의 고용위기 문제를 더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여성들이 코로나19 이후 전개된 고용 충격을 어떻게 경험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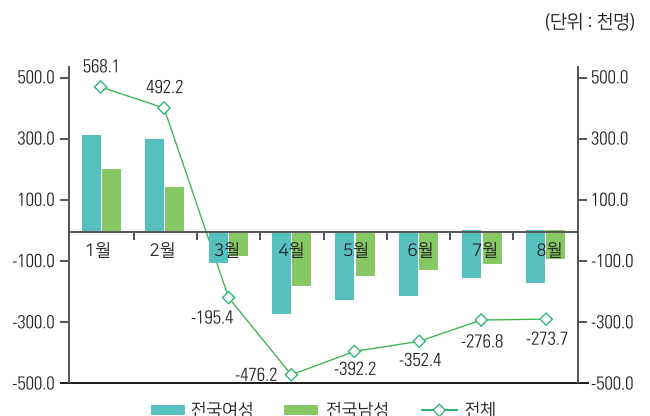
2. 코로나19 이후, 충북 여성 고용 지표

• 코로나19, 상반기 고용충격은 4~5월에 여성 고용률 하락으로 나타났으며 4월에 여성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천9백명 감소

- 코로나19의 국내외 본격 확산에 따른 내수 둔화, 수출 부진 확대 등이 전국적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충북은 타지자체에 비해 고용률 하락이 적게 나타남. <그림2>와 같이 전국 데이터는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가 나타나서 8월까지도 감소세가 이어짐. 반면, <그림1>과 같이 충북은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둔화되었지만 전체 취업자 수 기준으로는 1월부터 8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감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음.
- 하지만, 여성 고용 동향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가장 크게 나타난 4, 5월에 여성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음(4월: 2,900명 ↓, 5월: 600명 ↓). 남성 고용지표 역시 7월부터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및 고용률의 감소폭이 더 커졌음.



[그림 1] 충북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감(2020)



[그림 2] 전국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감(2020)

1) "충북고용시장 '훈풍'"(충청일보, 2020. 8. 12.), "2분기 충북 고용사정 양호"(충북넷, 2020. 8. 19.) 등

[표 1] 충북 고용률 및 취업자 수 증감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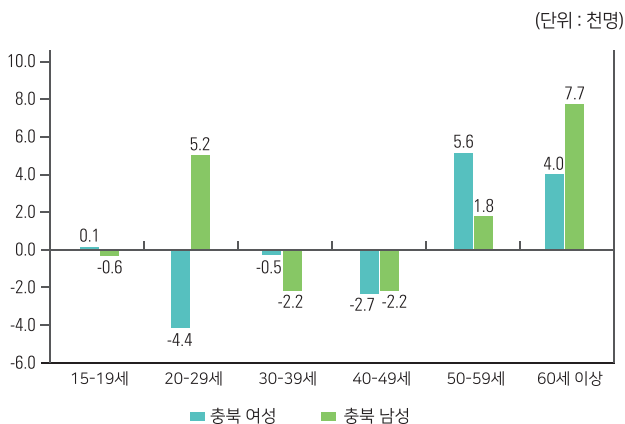
(단위 : %, 천명)

	전체			여성			남성		
	19년 고용률	20년 고용률	취업자수 증감(20-19)	19년 고용률	20년 고용률	취업자수 증감(20-19)	19년 고용률	20년 고용률	취업자수 증감(20-19)
1월	60.1	61.0	21.7	49.6	51.3	13.9	70.6	70.6	7.9
2월	60.7	61.7	21.9	51.0	51.9	8.4	70.3	71.3	13.5
3월	62.3	62.8	15.0	52.4	53.5	10.0	72.1	71.9	5.0
4월	63.2	63.1	4.9	54.0	53.3	-2.9	72.3	72.7	7.8
5월	64.3	64.5	7.9	55.7	55.4	-0.6	72.9	73.4	8.5
6월	63.6	64.7	21.8	54.4	55.6	9.7	72.6	73.7	12.1
7월	63.7	64.5	15.7	54.4	56.4	15.4	73.0	72.5	0.3
8월	63.9	63.7	0.9	54.8	55.5	6.6	73.0	71.7	-5.9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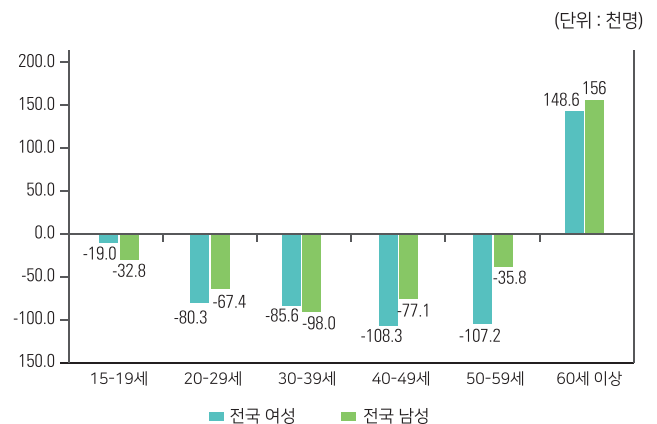
• 2/4분기 20대 여성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천4백명 감소해서(7.3% ↓) 20대 여성에게 고용충격이 크게 발생했으며, 충북의 양호한 고용지표를 견인한 계층은 20대 남성과 5,60대 남녀임

- 충북의 20대 여성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가장 커서 2/4분기 20대 여성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4천4백명 감소함(7.3% ↓). 반면, 20대 남성은 취업자 수가 5천2백명 증가해서(5.2% ↑) 충북 청년고용의 성별격차 및 청년여성 일자리 진입구조의 취약성(유정미, 2019)이 코로나19 이후 더 확대되고 있음. 충북에서 코로나19 이후 도 · 소매 및 숙박 · 음식점업,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직업별로도 사무직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표2>참조), 그 외 산업에서도 신규 채용자 수가 줄어드는 등의 원인을 가늠해볼 수 있음. 20대의 경우 취업의 지연이 향후 일자리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20대 여성 고용률 향상 대책이 필요함.
- 3,40대 여성 취업자 수의 감소도 있었으며 30대에 비해 40대 여성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서, 전년 동기 대비 40대 여성 취업자 수가 2천7백명 감소함(3.3% ↓). 3,40대는 비자발적 실업 외에도 자녀 돌봄으로 인한 실업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전국 데이터에서 50대 여성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가장 컸던 것과 반대로 충북은 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했음.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kosis.kr>

[그림 3] 충북 전년 동분기 대비 취업자 증감(2020년 2/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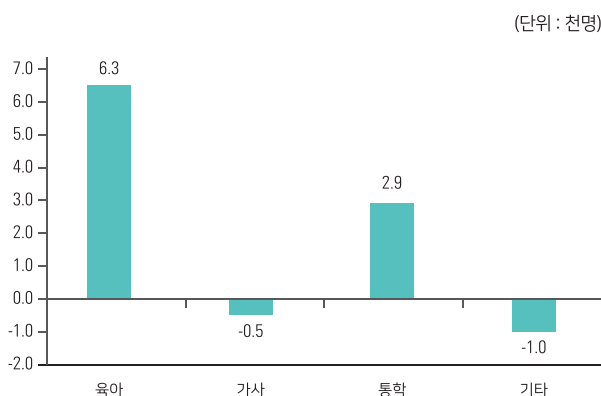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kosis.kr>

[그림 4] 전국 전년 동분기 대비 취업자 증감(2020년 2/4분기)

- 남성 역시 3,40대 남성의 취업자 수 감소가 있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부정적 영향이 장기적으로 더욱 커질 수 있음을 함의함.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한 중고령 일자리의 경우 공공일자리, 비임금 일자리, 임시직 및 단기 일자리 비중이 높아서 중고령 취업자 수의 증가가 도내 고용 수준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전국 데이터를 보면(<그림4> 참조) 2/4분기에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여성의 감소폭이 남성에 비해 컸던 것과 달리 충북은 성별, 연령별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에는 충북의 성별 직종분리, 산업분리의 특징이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 2020년 7월 기준 충북의 산업 성별분리 지수는 0.453로 전국 0.4245에 비해 높음(이정아, 202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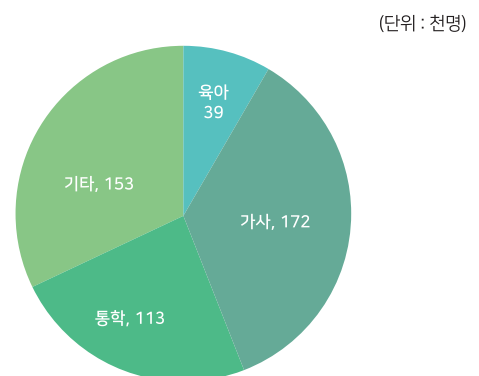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에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6천3백명 증가해서 여성들이 돌봄 부담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

- 2/4분기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증감을 보면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6천3백명 증가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중·고 휴교,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등이 이어짐에 따라 돌봄 부담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여성들이 다수 있을 가능성이 큼.
- 2/4분기 충북 비경제활동인구는 47만7천명이며 활동상태는 가사 17만2천명, 통학 11만3천명, 육아 3만9천명, 기타 15만3천명 순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kosis.kr>

[그림 5] 충북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별 증감(2020년 2/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kosis.kr>

[그림 6] 충북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2020년 2/4분기)

• 2/4분기에 충북 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천6백명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50대 여성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과 상반된 양상

- 전국적으로 50대 여성의 고용률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고령 여성 취업자 수가 많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대면 노동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감소 등의 영향을 반영하며, 충북 역시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표2> 참조)
- 충북에서 50대 여성 취업자 수 증가는 농업분야 계절 노동력으로 취업, 의약품, 마스크 생산 등과 같이 코로나19 이후 생산량이 증가한 도내 제조업 분야 취업 증가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음. <표3>과 같이 2/4분기에 도내에서

의약품, 식료품, 화학제품 등의 생산량 증가가 발생함. 코로나19로 농업 및 제조업에 외국인 노동자 신규 고용이 어렵게 된 점도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

[표 2] 충북 전년 동월 대비 산업별 취업자 증감(2020)

(단위 : 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농림어업	10	7	21	5	11	-1	2	1
광공업	2	1	5	5	1	10	12	12
• 제조업	3	3	6	6	1	10	12	13
사회간접자본및기타	10	13	-11	-5	-4	13	2	-12
• 건설업	1	-1	1	3	-7	-8	-10	-13
• 도 · 소매 및 숙박 · 음식점업	2	-6	-6	-9	-3	0	-9	-8
•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업	10	17	-10	-2	1	13	14	1
• 전기운수통신금융	-1	3	4	4	5	8	7	8

*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 「2020년 충청지역 고용동향」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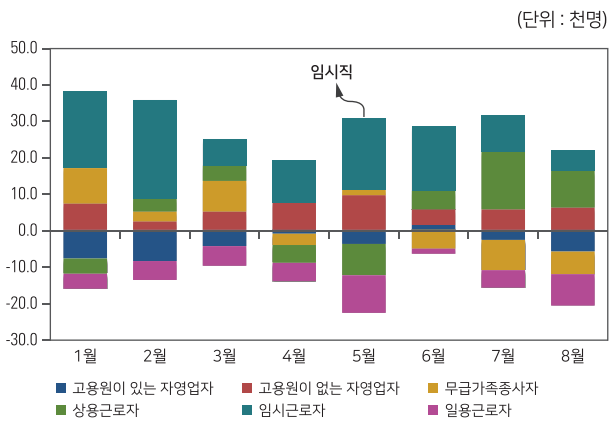
[표 3] 충북 전년 동월대비 광공업 생산량 증감 현황(2020)

	4월	5월	6월
광공업 생산량 전년 동월대비 증감	- 10.7%	- 14.8%	- 2.2%
전년 동월대비 증가업종	식료품(7.8%), 의약품(10.8%), 화학제품(5.5%) 등	의약품(11.1%), 기타운송장비(29.3%), 가구(2.2%) 등	자동차(39.0%), 고무 플라스틱(38.7%), 화학제품(5.8%) 등
전년 동월대비 감소업종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음향통신(-29.9%), 기계장비(-52.9%), 자동차(-27.1%) 등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음향통신(-22.4%), 화학제품(-28.9%), 자동차(-40.1%) 등	식료품(-7.5%),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음향통신(-16.0%), 전기장비(-8.1%) 등

*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2020. 5.; 2020. 6; 2020. 7), 「2020년 충청지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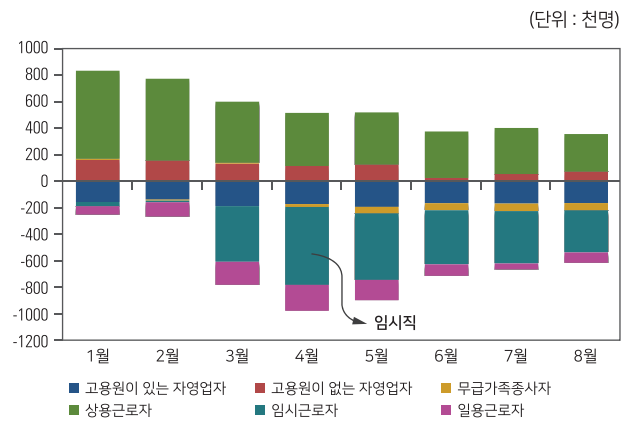
- 2/4분기에 임시직 취업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해서 임시직 취업자 수 증가가 양호한 고용지표를 견인함
 - 충북이 전국의 고용동향과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임시직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는 점임. <그림8>과 같이 전국 통계에서는 3월부터 임시직 취업자 수 감소가 크게 나타났고, 이외에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하고, 반대로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함. 반면, <그림7>과 같이 충북에서는 4~5월에 전년 동월 대비 임시직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상용직 취업자수는 감소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은 전국 경향과 동일함.

- 코로나19 이후 충북의 고용동향이 전국과 다르게 나타난 데에는 임시직 취업자 수 증가의 영향이 있어서 이 경향이 장기적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50대 여성 취업자 수의 증가 역시 임시직 일자리로의 진입 가능성을 시사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kosis.kr>

[그림 7] 충북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2020)(전년 동월대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kosis.kr>

[그림 8] 전국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2020)(전년 동월대비)

3.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 지급 현황

- **코로나19 이후 전체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자 수가 증가했으며 여성의 증가율이 더 커서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타격이 여성에게 더 크게 발생함** (1월 대비 7월 기준, 여성 26.9% ↑ 남성 17.3% ↑)
- 7월에 실업급여 지급자 수가 최고치에 달해 충북에서 총 19,776명이 실업급여를 수령했으며, 여성 10,424명, 남성 8,928명으로 여성 비율은 52.7%임. 실업급여 지급자 수 추이에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있어서 <그림9>와 같이 '18~'19년에는 지급자 수가 3월에 최고치에 달했다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인데 '20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7월 까지 증가세가 이어졌음.
- 3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자 중 여성 비율이 남성을 상회하기 시작해서 이런 추세가 8월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5월은 여성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점으로 실업급여 지급자 중 여성 비율이 54.3%임. 1월 대비 7월 증감률을 보면 여성은 26.9% 증가, 남성은 17.3% 증가해서 여성의 증가율이 더 높음.

* 2020년 8월 기준 충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396,235명이고 여성 비율은 42.0%(여성 166,285명)임(고용보험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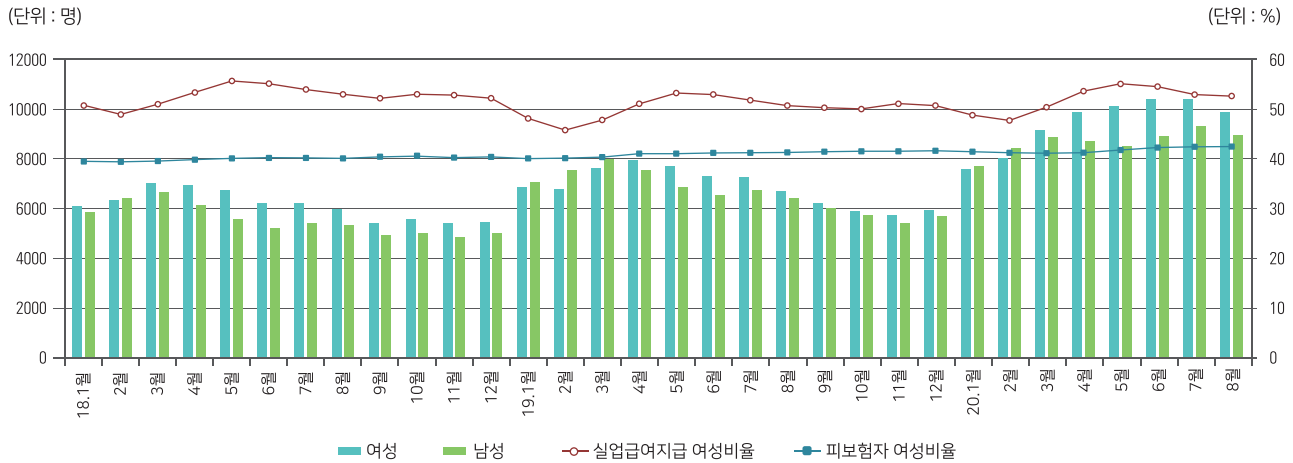
[표 4] 충북 실업급여 지급자 수 (2020. 1. ~ 2020. 8.)

(단위 : 명,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증감률(주1) (1월-7월)
여성	7,618	8,072	9,182	9,924	10,151	10,441	10,424	9,895	26.9%
남성	7,734	8,458	8,889	8,726	8,530	8,928	9,352	8,966	17.3%
합계	15,352	16,530	18,071	18,650	18,681	19,369	19,776	18,861	22.4%
여성 비율	49.6%	48.8%	50.8%	53.2%	54.3%	53.9%	52.7%	52.5%	

* 자료 : 고용보험통계 <http://www.ei.go.kr>

* 주 1: 실업급여 지급자 수 증감에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있어서 월별 증감을 단순비교하기 어렵지만 증감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부득이 1월 대비 7월 증감률을 계산함. 2019년 10월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비교는 불가함.



* 자료 : 고용보험통계 <http://www.ei.go.kr>

* 주 : 2019. 10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20년의 실업급여 지급자 수 증가에는 지급요건 완화에 따른 증가인원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음.

[그림 9] 충북 실업급여 지급 동향(2018. 1. ~ 2020. 8.)

• 여성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서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실업 증가가 더 컸음

- 전체 지급자 수가 최고치였던 7월 기준으로 여성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증가폭이 가장 커서 1월 대비 7월 증가 인원이 783명이고, 증가율에 있어서는 5인~9인 사업장이 41.1% 증가로 가장 컸음. 10인~29인, 30인~99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1월 대비 20% 이상의 증가율이 나타났음.
- 남성의 경우 양상이 조금 다른데 1월 대비 7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실업급여 지급자 증가율이 26.0%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은 30인~99인 사업장의 증가율이 22.7%로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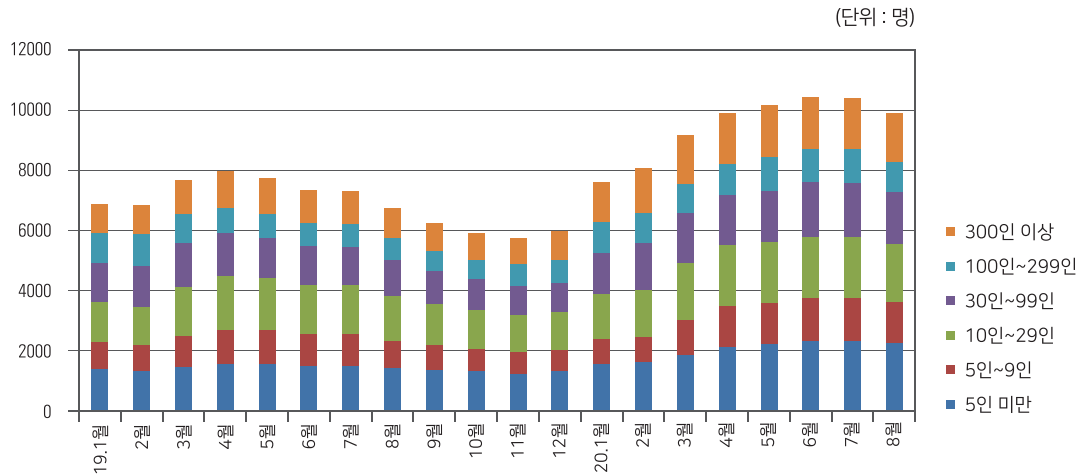
[표 5] 충북 사업장 규모별 여성 실업급여 지급자 수 (2020. 1. ~ 2020. 8.)

(단위 : 명,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증감률(주1) (1월-7월)	증감률 (1월-7월)
5인 미만	1,540	1,608	1,855	2,127	2,207	2,300	2,323	2,239	33.7%	783
5인~9인	844	836	1,153	1,343	1,379	1,435	1,433	1,381	41.1%	589
10인~29인	1,510	1,570	1,917	2,047	2,046	2,055	2,044	1,932	26.1%	534
30인~99인	1,350	1,581	1,669	1,667	1,710	1,823	1,807	1,739	25.3%	457
100인~299인	1,058	996	984	1,049	1,106	1,110	1,117	1,000	5.3%	59
300인 이상	1,315	1,481	1,604	1,691	1,703	1,718	1,700	1,604	22.6%	385
합계	7,617	8,072	9,182	9,924	10,151	10,441	10,424	9,895	26.9%	2,807

* 자료 : 고용보험통계 <http://www.ei.go.kr>

* 주 1 : 실업급여 지급자 수 증감에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있어서 월별 증감을 단순비교하기 어렵지만 증감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부득이 1월 대비 7월 증감률을 계산함. 2019년 10월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비교는 불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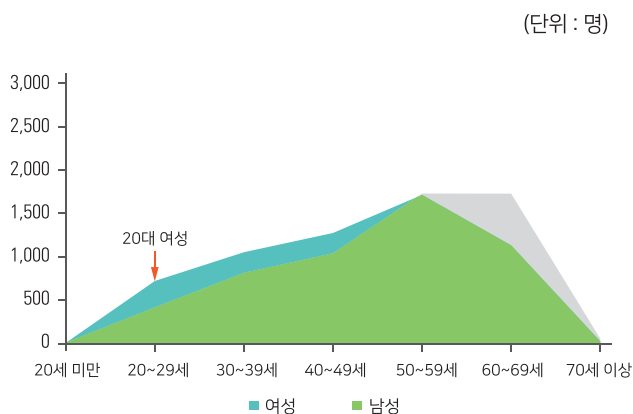


* 자료: 고용보험통계 <http://www.e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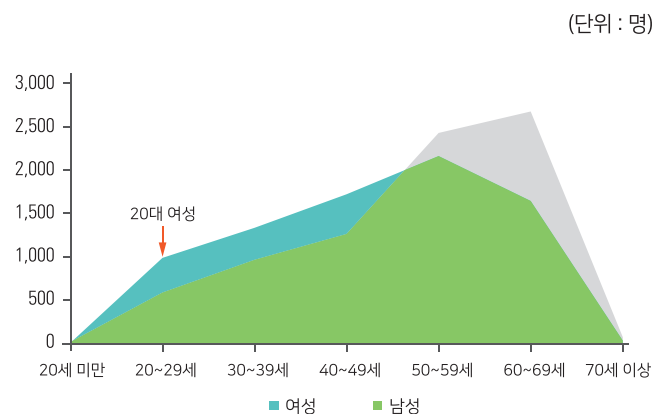
[그림 10] 충북 사업장 규모별 여성 실업급여 지급자 수(2018. 1. ~ 2020. 8.)

• 20대 여성 실업급여 지급자 비율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코로나19 이후 20대 여성은 일자리 진입뿐만 아니라 유지에서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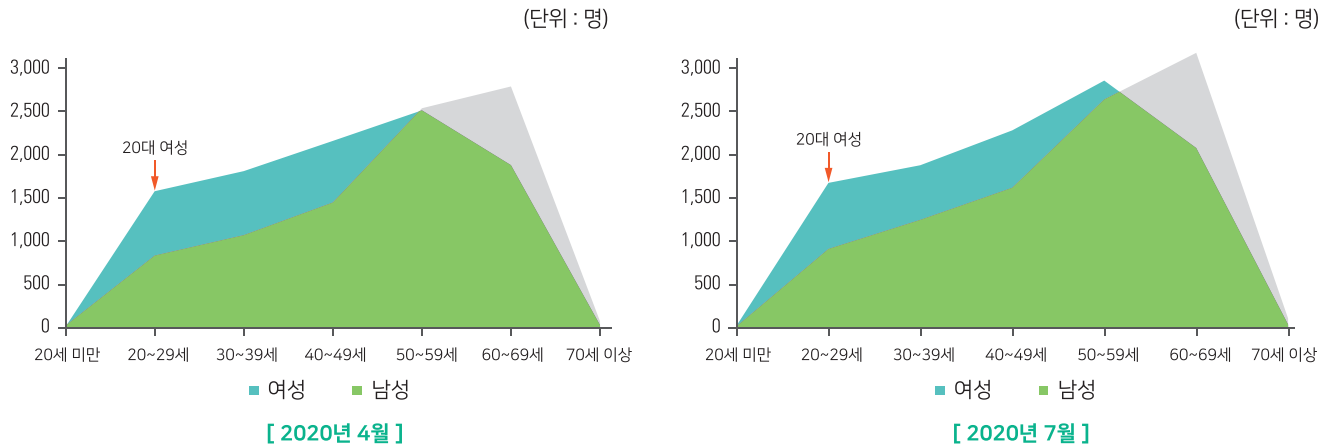
- '19년 10월부터 '20년 7월까지 3개월 간격으로 연령대별 실업급여 지급자 수 변화를 보면 '19년 10월과 '20년 1월에 비해 '20년 4월과 7월에는 20대 여성 지급자 수의 연령대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9년 10월의 경우 여성 실업급여 지급자 수가 20대 여성 720명, 30대 여성 1,050명이었던 것이, '20년 7월에는 20대 여성 1,612명, 30대 여성 1,809명으로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의 수가 비슷한 정도로 변화함.
- '19년 10월 대비 '20년 7월 20대 여성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892명 증가(55.3% ↑)('19. 10월 720명 → '20. 7월 1,612명), 20대 남성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461명 증가(52.6% ↑)('19. 10월 415명 → '20. 7월 876명)했으며 20대 여성과 남성의 실업급여 지급자 수 격차 역시 두 배 이상 더 커졌음.



[2019년 10월]



[2020년 1월]



* 자료 : 고용보험통계 <http://www.ei.go.kr>

* 주 : 2019. 10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것을 고려해서 2019. 10월 기준으로 비교함.

[그림 11] 충북 연령대별 실업급여 지급자 수

4. 코로나19 이후, 여성 일자리 현장들

아래 글은 충북여성재단에서 2020년 7월에 개최한 2차례의 <지역단위 액션플랫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한 내용 중 여성 고용 관련 내용을 정리·분석한 것임. 이 간담회는 여성가족부의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지역단위 사업 운영을 위해 열렸으며 “코로나19 이후 충북지역 성평등 정책/운동의 과제”가 토론 주제로 포함됨. 참석자들은 도내 여성단체 활동가, 여성 관련 기관 담당자, 관련 분야 교수,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토의함. 간담회에서는 통계 자료를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이후 여성 고용과 관련한 현장감 있는 문제 진단이 제시되어서 이 지면을 빌어 해당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비대면 시대, 돌봄 노동자의 취약성 심화]

- 비대면 시대 대면 노동을 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정성, 감염 위험성, 노동인권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됨
 - 보육교사, 아이 돌보미, 요양보호사, 방과후 교사, 가사노동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증가함. 돌봄은 대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데 대면 접촉에 대한 기피가 확산되고, 이들 일자리 상당수가 상용직이 아니라 수요에 기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실업 및 소득감소의 위험이 더욱 커짐.
 -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돌봄노동의 특성상 대면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염의 위험성이 높으며,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때문에 돌봄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제한적임. 수요자가 돌봄노동자를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보고 처우함에 따라 노동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음.

“돌봄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대면으로 ... 지원될 수밖에 없는 서비스인데”(2020년 7월 간담회)

“지금 영아보육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머니들께서 어차피 지금 어린이집 이용 못하는 경우에 어린이집 이용을 끊어요. 내가 어차피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니깐 내가 양육수당 받으면서 있지 ... 라고 생각을 하고.”(2020년 7월 간담회)

“돌봄 노동자의 너무 열악한 처우가 있잖아요. 급여 부분에서도 상당히 열악하지만 ... 갑을 관계, 얘기를 들어보면 돌봄 노동자가 (일하러 가정으로) 가면, ‘지난 주말에 어디 갔다 왔느냐’ 그리고 ‘빨리 가서 손 씻어라’, ‘누구를 만나지 않았느냐’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가사노동자 요청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하고, 자가용 이용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2020년 7월 간담회)

[위기에 더 약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 충북 여성 임금 노동자의 40% 가까이가 비정규직으로 여성의 비정규직화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많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음

- 충북 여성 임금노동자의 36.7%가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이며(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9년 하반기) 고용위기 상황에서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쉽게 해고되고 있음. 상반기에 충북에서 임시직 일자리 증가가 있었지만, 비정규직 해고가 없었다기 보다는 이 수치를 능가하는 임시직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비정규직의 경우 연차휴가, 돌봄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 감염병 발생 이후 가정 내 돌봄과 일자리 병행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표면상으로는 ‘자발적’ 실업이지만 일과 돌봄의 병행이 어려운 고용 조건이라는 점에서 성별관계를 기반으로 구조화된 비자발적 실업임.

“상용직근로자들은 휴가 쓰고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니까 그나마 되는데 저는 ‘아 이제 격차가 더 심해지는데구나’. 노동시장에서 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의 여성들의 격차가...”(2020년 7월 간담회)

[돌봄 부담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전환, 여전히 돌봄 전담자인 여성들]

• 코로나19 확산 이후 돌봄 및 학교 시설 운영이 중지되면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돌봄을 위해 일자리를 떠나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진입 역시 지연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전개된 돌봄의 공백을 여성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조정되면서 일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증가했음. 감염병 전파 상황은 대응하기 어려운 특수 상황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왜 주로 ‘여성’들이 돌봄의 전담자가 되어서 일자리를 떠나는가임. 그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및 돌봄의 사회화가 확산되어 왔음에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 노동시간 운영의 경직성, 남성들의 돌봄 참여 제한 등 고용의 젠더 구조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 여성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자리 진입을 지연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함. 돌봄의 공백 상황에서 여성들이 일자리 진입 시기를 늦춤으로써 경력단절 기간이 더 장기화될 수 있음.

“문제는 저처럼 일하는 여성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집에 들어가면 또 가사일도 해야 되는”(2020년 7월 간담회)

“돌봄 휴가를 20일 쓰게 되어 있었잖아요. 남자 열흘, 여자 열흘, 그거 갖고 저희 기관도 논쟁이 붙었거든요. 현장에서 육아기에 있는 여성들은 이제 급하니까 “한 사람이 다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다급해도 이렇게 가는 순간은 여성들이 주로 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20일을 쓰는 순간 여성들을 혐오하는 것이 늘어날 것이다.”(2020년 7월 간담회)

[보이지 않는 여성 단시간 노동자들]

-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여성 단시간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실업을 겪고 있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단시간 노동자들은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있음**

- 카페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청년 여성들이며 이들의 일자리 상실 문제는 고용대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충북의 2020년 3월 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천6백명 감소했으며 감소세가 4월과 5월까지 이어짐.

“사실 그런 분들은 유연성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유연화 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안정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논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 아예 논의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아예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2020년 7월 간담회)

5. 정책제언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의 실업은 산업의 측면 외에도 성별임금격차, 노동의 성별분업, 성별직종분리, 여성의 비정규화, 돌봄을 배제하는 작업장 문화 등 여성 고용의 취약한 구조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성평등 고용을 위한 여러 과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여기서는 당면 과제에 초점을 두고 몇 가지 긴급 제안을 하고자 함.

- **2,30대 청년 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 2,30대 청년 여성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충격이 가장 컸던 계층이지만 이들의 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은 부각되고 있지 않음. 마찬가지로 여성 비중이 높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분야 취업자 감소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청년 여성 실업자, 청년 여성 미취업자 등 청년 여성을 위한 고용대책이 요구됨.

☆ 청년여성 일자리 상황판 운영, 성별 직종분리 · 산업분리 해소를 통한 여성 일자리 확대 정책, 디지털 기반 신규 여성 일자리 개발, 도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성차별적 채용 근절 및 성평등 채용문화 확산, 청년 여성 창업 지원, 청년여성 미취업자 현황 파악 및 긴급 일자리 지원 등

• 필수노동자 고용안정 및 고용조건 개선 지원

- 감염병 확산시기에 보건의료인력, 돌봄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이들의 일자리는 고용 안정성이 낮고 고용의 질도 낮음.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돌봄 전담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돌봄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들임.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수노동자 고용안정 및 고용조건 개선이 필요함. 서울 성동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수노동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필수노동자 소득 보장 정책, 감염병 전염으로부터 필수노동자 보호 방안 등

• 지역 기반 긴급 돌봄 체계 구축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어서 지역 기반 긴급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함. 영유아, 노약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위기 시에 방치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방안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돌봄을 위해 일자리를 떠나는 가정으로의 회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함.

☆ 긴급 돌봄 운영 현황 조사, 중복형 긴급 돌봄 체계 구축

• 코로나19 이후 여성 고용 실태 조사 및 종합적 대응책

- 코로나19 이후 지역 여성 일자리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임. 이 보고서 역시 자료의 한계로 심층적 분석을 하지는 못했음. 향후 자체적인 실태조사,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0년 조사자료(상반기 조사 12월 원자료 공개 예정) 등을 활용하여 심층 분석 및 종합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코로나19 이후 충북 여성 고용 실태조사

- 참고문헌 -

고용보험통계 <http://www.ei.go.kr>

유정미(2019), 『충북 청년세대 일자리 진입 및 정착의 성별격차』, 충북여성재단

이정아(2020), “코로나19 전후 충북 여성일자리 추이와 시사점”, 충북여성정책포럼 주최 「코로나19이후 충북여성일자리 정책 방향」 자료집

충청지방통계청, 「2020년 충청지역 고용동향」 각 월호

충청지방통계청, 「2020년 충청지역 산업활동동향」 각 월호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각년도 <http://kosis.kr>